

1. 검토배경

생명보험의 사망위험보장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더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생명보험의 보장기능 변화를 일본, 미국, 영국과의 보장비율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향후 국내 생명보험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생명보험은 개인의 생과 사와 관련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시장의 성장은 개인들의 보험수요 증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보험수요는 개인의 생사위험을 전가하기 위한 니즈가 존재하고 이를 전가하는 보험료를 지출할 능력이 있을 때에 가능함.
-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소득 향상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데, 이를 볼 수 있는 것이 GDP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인 보험침투도임.

■ 보험침투도(보험료/GDP)는 국내의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반하는 리스크를 전가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를 얼마나 지출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지만, 개인들의 생명보험 수요가 사망 등 위험보장을 위한 것인지 투자나 노후소득 확충을 위한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본고에서는 국민들의 사망위험보장수요와 연금 및 저축보험수요가 어떻게 변화여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망보험 등 보장성보험¹⁾의 보장금액(face amount)을 GDP로 나

1) 국내 생명보험의 정의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며, “순수보장성보험”이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을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보험”이란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연금보험”이란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

는 비율인 보장비율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국내 개인생명보험의 소비 또는 수요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보장비율은 1980년부터 2009년 동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에 대해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보장비율을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의 개인보험 수요추이를 검토하고자 함.

2. 개인 생명보험의 성장 추이

생명보험시장은 2000년까지 저축성을 가미한 상품 중심으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여 왔지만 IMF구제 금융위기 이후 소득감소 등 새로운 환경의 조성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성장력을 대체하여 왔음.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연금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생명보험은 개인들의 생사위험 노출정도의 변화에 따라 성장의 속도나 상품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2010년의 경우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83조 74억 원으로 이중에서 개인생명보험이 67.9%를 차지하고 있음.

- 생명보험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는 전통적인 생명보험 상품의 수요 확대에 따라 매년 38.8%의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 시장의 포화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

<표 1> 생명보험 영역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연도	일반계정		특별계정	생명보험 전체	
	개인보험	단체보험		보험료	성장률(CAGR)
1980	3,617	2,420	—	6,036	—
1990	120,333	40,103	—	160,436	38.8
2000	398,721	67,985	49,832	516,538	12.4
2005	463,699	14,108	136,915	614,722	3.5
2010	563,273	8,204	258,596	830,074	6.2

자료: 보험개발원(각 연도), 「보험통계연감」.

■ 생명보험 성장을 견인하는 개인보험시장의 경우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상품수요가 변화하고 있는데, 1990년 중반까지는 주로 저축성보험이 시장을 주도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금융형 상품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수요가 증가하여 보장성보험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²⁾

- 개인보험시장의 경우 1990년 중반까지 자녀교육 및 목돈 마련을 위한 교육보험, 노후 설계보험, 새 가정 복지보험 등 고금리 저축성보험이 주력 상품으로 성장하였음.
- 2000년 이후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저축성상품 금리부담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존 및 사망리스크가 크게 부각되면서 증가한 종신보험, CI보험과 연금보험의 수요가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또한 2002년에 도입된 변액보험은 저금리하에서 보험기능과 투자기능을 결합한 금융투자형 상품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에는 노후건강 및 장수리스크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퇴직연금의 성장과 다양한 리스크를 통합하는 통합계좌형 보험이 새로운 담보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

2) 안철경(2010). pp. 80~88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 하였음.

<그림 1> 생명보험 주력상품의 변천 과정



자료: 안철경(2010), p. 86.

■ 개인생명보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환경 변화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상품수요도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고령화와 장수리스크 요인에 따라 이를 담보하는 보험 상품이 주도하고 있음.

- 생사혼합보험은 1990년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사망보험은 199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성장하여 보험시장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최근에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후소득을 위한 연금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음.

<표 2> 개인 생명보험의 보험료 및 보유계약액 연평균 성장률

(단위: %)

구분	수입보험료				연말 보유계약액			
	생사	사망	생존	소계	생사	사망	생존	계
1975~1980	95.5	39.5	27.7	49.5	86.3	92.0	40.5	68.3
1981~1990	28.5	23.0	53.3	38.5	11.5	3.7	41.6	21.1
1991~2000	14.5	47.2	1.0	11.4	17.7	44.8	5.5	21.2
2001~2010	-0.4	9.9	9.1	6.3	10.8	11.2	8.6	10.7

주: 생존보험에는 변액연금보험, 사망보험에는 변액 종신보험, 생사혼합에는 변액 유니버설보험이 포함되었음.

자료: 보험개발원(각 연도), 「보험통계연감」을 이용하여 작성함.

-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개인 생명 보험료의 구성비도 크게 변화하였는데, 1970년대의 경우 저축성인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99.5%로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지만, 2000년

이후 사망보험 수요가 점증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38.7%를 차지하고 있음.

<표 3> 개인생명보험 상품별 수입보험료 비중

(단위: %)

연도	생존	사망	생사혼합
1970	77.4	0.5	22.1
1980	35.4	4.7	59.9
1990	62.4	1.7	35.9
2000	27.3	31.4	41.3
2010	36.3	38.7	25.0

주: 생존보험에는 변액연금보험, 사망보험에는 변액 종신보험, 생사혼합에는 변액 유니버설보험이 포함되었음.
자료: 보험개발원(각 연도), 「보험통계연감」.

3. 개인생명보험의 보장비율 분석

국내 생명보험의 사망위험보장 기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됨. 2009년 국내 보장비율은 1.255%로 미국 0.731%, 영국 1.126%보다 높고 일본 1.90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향후 사망위험 보장수요는 국민들의 실제수요만큼으로 제한적인 반면, 노후소득보장 수요는 고령화로 인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가. 보장비율의 의미

■ 가계의 생명보험소비(보험계약량×단가)를 측정하는 변수는 보험침투도 또는 보험밀도, 보장비율이 있으나 보장비율이 개인보험선호도를 세부요인으로 분석하여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음.

- 보험의 구입이나 소비를 보험밀도(보험료/인구)나 보험침투도(보험료/GDP)로 측정하는 경우 국가 간 상대비교에는 용이하지만, 보험소비가 사망위험 보장을 위한 것인지 저축이나 노후소득 확보 수단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는 보험료가 유량변수(flow variable)이기 때문에 동일한 경제규모일지라도 보험료 규제가 다른 경우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인 소득수준을 감안하지 아니하

고 1인당 보험료를 비교하는 경우에 왜곡된 결과를 보이기 때문임.³⁾

- 보험료는 가격경쟁이 없는 경우 동일한 경제규모일지라도 보험단가인 요율을 높이면 보험료가 증가되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구조나 규제제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이와 같이 보험요율 인상에 의해 보험침투도가 상승하는 시장은 비경쟁적인 시장이거나 비효율적인 시장일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비해 보장비율은 저량 변량(stock variable)으로 회계연도 말 시점에서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사망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험소비가 사망 위험보장과 노후소득이나 저축수단으로 활용하는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표 4> 보험소비 측정 지수의 비교

구분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보장비율
산출	보험료/GDP	보험료/인구	사망위험보장금액/GDP
의미	경제규모에 대비한 보험료지출을 상대적으로 비교	소득수준을 조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국가 간 보험료 지출 비교	경제규모대비 보험회사의 사망보험보장금액 비율을 상대적으로 국제적 비교
특징	유량변수(보험료)	유량변수(보험료)	저량변수(보장금액)

■ 보장비율은 연도 말 국내 총생산액에서 연도 말 사망보험보장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며 개인보험계약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또는 은퇴 이후의 사망위험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 지를 가늠해보는 지표가 됨.

○ 보장비율은 생명보험가용도와 사망보장단가, 사망보험선호도, 가계비중 등 4개 요인의 곱으로 분해하여 산출됨⁴⁾.

3) Thorsten Beck and Ian Webb(2003), pp. 5~9.

4) 久保英也(2005), p. 41.

$$\begin{aligned}
\text{보장비율} &= \frac{\text{사망보험보장금액}}{GDP} \\
&= \frac{\text{개인생명보험료}}{\text{가처분소득}} \times \frac{\text{사망보험보장금액}}{\text{사망보험료}} \times \frac{\text{사망보험료}}{\text{개인생명보험료}} \times \frac{\text{가처분소득}}{GDP} \\
&= \text{생명보험가용도} \times \text{사망보장단가} \times \text{사망보험선호도} \times \text{가계비중} \\
&= \text{보험침투도} \times \text{사망보장단가} \times \text{사망보험선호도}
\end{aligned}$$

- 또한 보장비율은 보험침투도와도 관련이 있는데 사망보장단가와 사망보험선호도가 동일하다면 침투도가 높을수록 보장비율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생명보험의 침투도가 동일하다면 사망보험 선호도가 높을수록 보장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Thorsten Beck and Ian Webb(2002)은 1960-1996년 기간 중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63개 국가의 보장비율을 분석한 결과 15세 이하의 인구비중과 학력수준, 인플레이션율이 보장비율에 양(+)의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음.
 - 15세 이하의 인구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증가하면 보장비율은 24.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망보험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가족의 생활비를 확보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하 분석에서 보장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종목 구분과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보장성보험은 각 국가별로 정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발표된 통계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용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보장성보험은 일반계정의 사망보험과 특별계정의 변액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보았으며, 다른 보험종목은 저축성과 연금보험으로 구분하였음.
 - 특약으로 담보하는 건강보험의 경우 분리되어 있지 않아 해당 보험종목에 포함되어 있음.
 - 일본은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사망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사용하였음.
 - 미국과 영국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사용했으며 건강보험은 제외하였음.
- 사용한 통계자료는 1980년부터 2009년간이며, 보험통계는 보험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험통계자료를 사용했고, GDP 및 국민가처분소득은 중앙은행 등 국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 우리나라의 개인생명보험 보장비율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1990년 0.159%)을 보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생명보험시장의 사망위험 보장기능이 크게 확대되었음.

○ 2009년 우리나라의 보장비율은 1.255%로 미국(0.731%), 영국(1.126%)보다는 높고 일본(1.905%)보다는 낮은 수준임.

○ 이에 비해 일본은 보장비율이 1995년 2.952%를 정점으로 최근에 올수록 매년 3.1%⁵⁾씩 감소하고 있지만, 비교대상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비율임.

－ 이에 대해 久保英也(2005)는 일본 국민들이 보장성보험을 과대하게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미국도 보장비율이 일본에 비해 크게 낮지만 연도별로 완만하게 매년 1.7%씩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에 비해 영국은 2000년까지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그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미국의 보장비율이 일본이나 영국에 비해 낮은 것은 독립적인 건강보험제도와 단체보험의 활성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⁶⁾

5) 성장률변화는 2009년 분석치가 1995년 대비하여 연평균 얼마나 증감하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누적 연평균성장률(CAGR(15))을 의미함(이하 동일함). 최근 변화를 참고하기 위하여 최근 5년 평균 성장률(CAGR(5))을 추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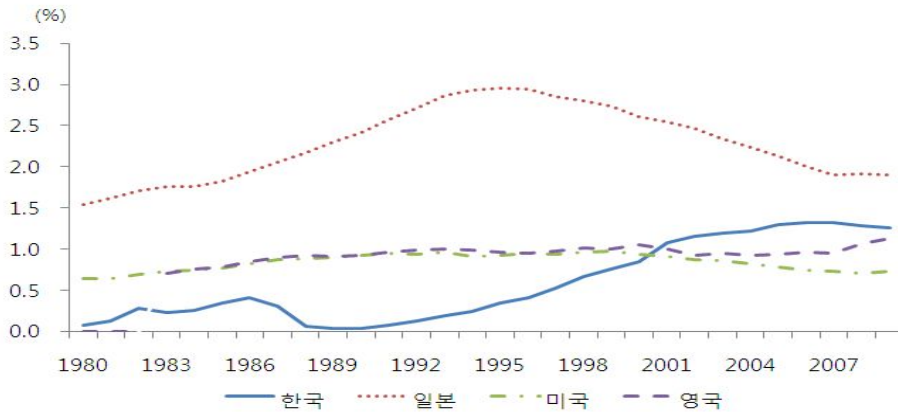
6) 미국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은 보장성 생명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이며 이중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2009년 기준으로 25.8%이며, 단체보험형태로 수입되는 보험료는 37.8%에 이룸.

<표 5> 보장비율 산출결과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1980	0.083	1.547	0.644	—
1985	0.353	1.820	0.777	0.781
1990	0.045	2.418	0.929	0.932
1995	0.344	2.952	0.929	0.969
2000	0.850	2.603	0.942	1.050
2005	1.298	2.128	0.789	0.945
2006	1.322	2.009	0.751	0.964
2007	1.319	1.902	0.728	0.951
2008	1.291	1.910	0.714	1.067
2009	1.255	1.905	0.731	1.126
CAGR(15)	9.7	-3.1	-1.7	1.1
CAGR(5)	-0.8	-2.7	-1.9	4.5

<그림 2> 보장비율의 국가별 비교



나. 보장비율 요인별 특징

1) 생명보험가용도

■ 보장비율의 첫째항인 생명보험가용도(개인보험료를 국민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⁷⁾는

국민가처분소득 중에서 생명보험료로 지출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⁸⁾이 증가할수록 생명보험을 가입할 의향이 커진다고 볼 수 있음.

-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개인의 세금과 세외부담을 제외한 금액(개인소득-이자 지급 등 비소비지출+이전소득(사회보장금·연금 등))이기 때문에 생명보험가용도는 국민들의 소비경향, 저축성향, 사회복지 지출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생명보험가용도는 수요측면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소득 중에서 생명보험을 구입한 정도를 의미하는 보험지출성향을 표현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생명보험가용도는 1980년에 1.315%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1990년 대에 들어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높은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2009년 우리나라의 생명보험가용도(10.333%)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경우 일본(8.378%)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미국(2.061%)과 영국(3.316%)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임.
- 즉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단위소득 당 노후소득보장이나 유족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미국과 영국에 비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계약자들이 미국과 영국 국민들에 비해 생명보험을 통한 저축기능이나 보장기능 수요가 매우 높다고 해석 될 수 있음.
- 생명보험가용도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연평균 0.5%, 1.3% 상승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각각 2.3%, 2.7%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7) 久保英也(2005. 5)는 이를 생명보험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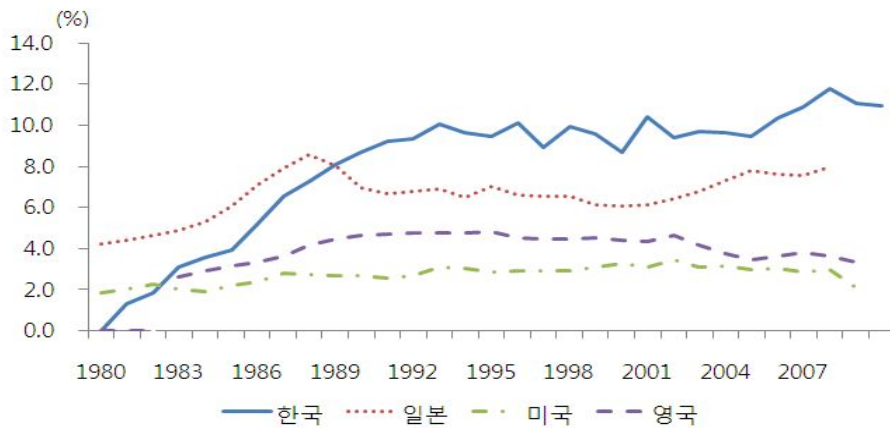
8) 국민가처분소득(개인가처분소득)은 “국내총생산-고정자본소모+대외순수취요소소득+대외순경상이전”으로 산출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개인소득 중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함(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

<표 6> 생명보험가용도 산출 결과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1980	1.315	4.239	1.852	—
1985	5.207	6.072	2.205	3.172
1990	9.214	6.934	2.685	4.621
1995	10.134	7.038	2.856	4.844
2000	10.438	6.094	3.305	4.435
2005	10.379	7.780	3.007	3.432
2006	10.877	7.601	3.036	3.612
2007	11.772	7.531	2.840	3.786
2008	11.058	7.946	2.980	3.628
2009	10.933	8.378	2.061	3.316
CAGR(15)	0.5	1.3	-2.3	-2.7
CAGR(5)	1.3	1.9	-9.0	-0.9

<그림 3> 생명보험가용도의 국가별 비교



2) 사망보장단가

■ 사망보장단가(사망보험보장금액/사망보험료)는 개인들이 사망, 질병 등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지출하는 단위 사망보험료 당 보장금액의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공급측면의

가격 및 담보금액 등 상품공급전략과 관련된 변수임.

○ 따라서 동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계약자가 지출하는 단위 사망보험료 당 사망보험보장 금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사망보장단가가 낮으면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사망위험보장 부분보다는 저축성 보험료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저축기능 상품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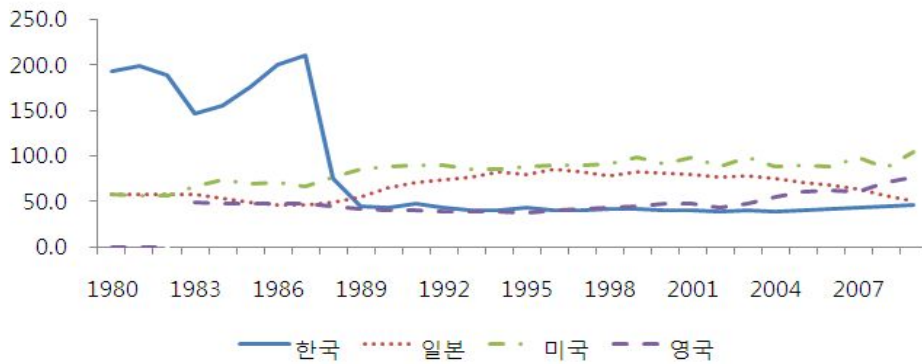
■ 2009년 우리나라의 사망보장단가는 45.613이며 증가되고 있지만 일본(51.185), 미국(104.733), 영국(76.34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임.

○ 이러한 점에서 보면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저축성보험료가 상당부분 포함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여 왔기 때문에 사망보장단가가 낮게 나왔다고 보여짐.

<표 7> 사망보장단가 추이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1980	192.564	58.258	58.353	—
1985	176.425	49.620	69.691	46.882
1990	42.575	65.600	89.013	40.595
1995	43.477	79.907	87.799	37.497
2000	40.877	81.168	91.483	47.117
2005	40.906	71.030	89.085	61.063
2006	41.592	68.245	88.243	61.585
2007	42.709	63.776	98.878	60.737
2008	44.456	56.501	87.346	71.363
2009	45.613	51.185	104.733	76.345
CAGR(15)	0.3	-3.1	1.3	5.2
CAGR(5)	2.8	-7.9	4.1	5.7

<그림 4> 사망보장단가의 국가별 비교



3) 사망보험선호도

■ 사망보험선호도(사망보험료/개인생명보험료)는 가계가 가처분소득내에서 지출하는 개인생명보험료가 어떠한 위험대비 목적인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며, 이 지표는 공적 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대책수준과 관련되어 있음.

- 사망보험선호도를 이용하여 개인들의 위험노출 정도에 따른 사망위험보장과 연금보험 수요 변화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수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사망보험선호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연금보험 구입은 거의 하지 않고 사망보험 등과 같은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사망보험선호도는 1990년대까지는 고금리의 저축성보험 수요로 인해 10% 내외로 미진하였고, 2000년대 들어 보장성보험의 수요창출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보장성보험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2009년 현재 사망보험선호도는 42.461%로 비교대상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사망보험선호도의 국가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9.6%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미국, 영국은 1% 내외로 감소하는 추이임.
 -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노후보장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서 연도별 보장성보험의 수요 변화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선진국의 경우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올수록 사망위험보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대신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보험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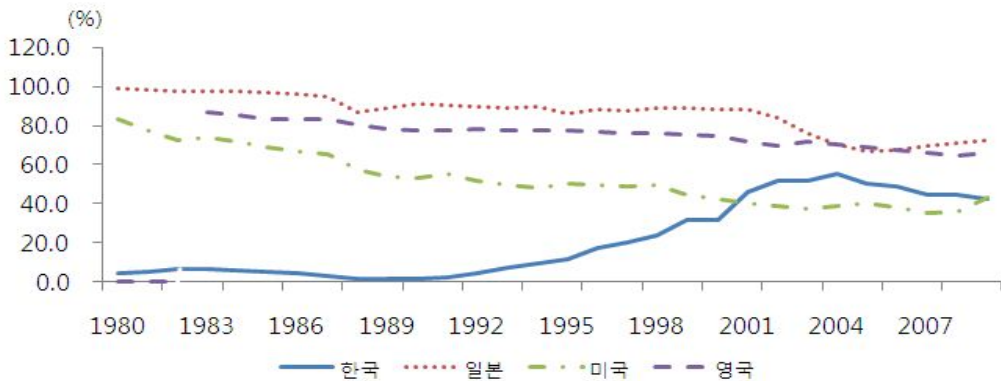
－ 이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개인이 내는 보험료의 50% 이상이 연금보험료이고 영국은 35% 이상, 일본과 우리나라는 30% 정도만 연금보험료이므로 국내의 연금보험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8> 사망보험선호도 추이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1980	4.655	99.009	83.021	—
1985	5.558	97.052	69.229	83.076
1990	1.699	91.227	53.020	77.560
1995	11.794	86.227	50.356	77.694
2000	31.449	88.154	42.327	74.679
2005	50.509	66.525	40.121	69.180
2006	48.665	67.201	37.856	67.454
2007	44.717	69.443	34.961	65.943
2008	44.450	71.378	35.972	64.811
2009	42.461	72.654	43.344	65.841
CAGR(15)	9.6	-1.2	-1.1	-1.2
CAGR(5)	-4.2	2.2	2.0	-1.2

<그림 5> 사망보험선호도의 국가별 비교



4) 가계비중

■ 가계비중은 GDP에서 국민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경제에서 가계가 얼마나 기여하는 가를 의미하므로 가계의 비중이 높아야 생명보험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보험상품도 개발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가계비중은 1980년대에는 70%이었으나 국가 경제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여 2009년 현재 59.3%로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상황임.

■ 이에 비해 미국과 영국은 가계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비중의 절대치도 우리나라보다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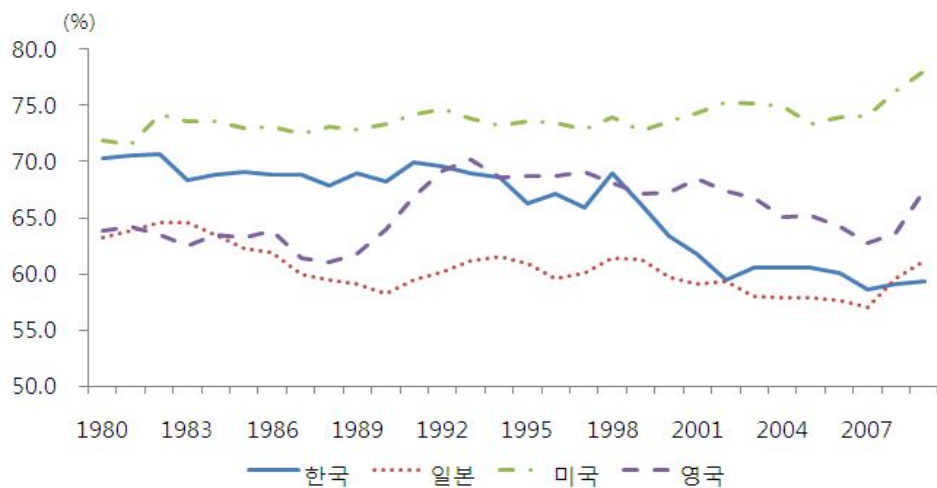
○ 따라서 생명보험 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계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표 9> 가계비중의 산출 결과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1980	70.336	63.282	71.830	63.816
1985	69.050	62.228	73.012	63.183
1990	68.240	58.271	73.339	64.026
1995	66.225	60.873	73.597	68.677
2000	63.322	59.685	73.629	67.308
2005	60.529	57.874	73.406	65.193
2006	60.068	57.621	74.004	64.222
2007	58.663	57.028	74.127	62.745
2008	59.098	59.601	76.225	63.608
2009	59.276	61.136	78.156	67.545
CAGR(15)	-0.8	0.0	0.4	-0.1
CAGR(5)	-0.5	1.4	1.6	0.9

<그림 6> 가계비중의 국가별 비교



4. 요약 및 시사점

생명보험의 보장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사망위험 보장기능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음.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 중심의 성장에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단가를 높인 순수보장성보험으로의 전환과 연금수요에 대비한 다양한 상품개발도 필요함.

■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예상치 못하게 사망하는 경우 유족의 생활자금을 지원하거나 은퇴 이후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구입하게 됨.

- 보험소비는 공적보장체계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험보장상품의 가입여력이 있지만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후소득확보를 위한 연금상품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영국의 생명보험의 보장비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은 1%를 넘어서고 있지만, 미국은 198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0.7%에서 0.9%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국내의 보장성보험 소비의 경우 향후 국민가처분소득이 증가될 것이지만 교육비, 주거비, 각종 사회부담금⁹⁾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가계저축률이 OECD 평균치 6.8%¹⁰⁾보다 낮은 3.2%(2010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보장성보험의 가입 여력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9) 사회부담금은 사회보험의 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합으로 구성됨. 사회보험부담률은 4대 사회보험이 도입(1964년 산재보험,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에 따라 1990년 9.4%에서 2008년 16.1%로 크게 증가했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으로 인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을 포함하면 1990년 14.5%에서 2008년 23.6%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가계저축률은 2000년대 4%p 낮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신원섭·이원기 2010).

10) 신원섭·이원기(2010), p. 5.

<표 10> 보장비율의 특징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보장 비율 (%)	1985	0.353	1.820	0.777	0.781
	1995	0.344	2.952	0.929	0.969
	2009	1.255	1.905	0.731	1.126
	CAGR(15)	9.7	3.1	-1.7	1.1
2009년 구성요소 (CAGR15)	생명보험가용도(%)	10.9(0.5)	8.4(1.9)	2.1(-9.0)	3.3(-0.9)
	사망보장단가	45.6(0.3)	51.2(-7.9)	104.7(4.1)	76.3(5.7)
	사망보험선호도(%)	42.5(9.6)	72.7(-1.2)	43.3(-1.1)	65.8(-1.2)
	가계비중(%)	59.3(-0.8)	61.1(0.0)	78.2(0.4)	67.5(-0.1)
	보험침투도(%)	6.5	7.8	3.5	10.0
	보험밀도(달러)	1,180.6	3,138.7	1,602.6	3,527.6
사회 환경요소	고령사회 도달연도	2018년	1995년	2014년	1975년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30.1	20.1	17.2	7.8
	가계의 금융 자산비중(%)	21.4	58.7	64.9	45.2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42.1	33.9	38.7	30.8
	가계저축률(%)	3.2('10)	3.2('10)	6.5('10)	-3.6('08)

자료: 1) 사회환경요소는 윤성훈 외 5인(2011), p 30, 86, 78 참조 바람.

2) 가계저축률은 신원섭·이원기(2010), p. 5 참조 바람.

■ 국내의 생명보험의 수요는 핵가족화 및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의 요인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보장성보험시장의 생명보험가용도(10.933%)는 일본(8.378%)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미국과 영국의 3배 이상 되기 때문에 개인보험시장의 수요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 국내의 사망보험선호도는 200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였지만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므로 소득계층별 또는 위험집단별로 다양한 보장성보험을 개발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사망보장단가(45.6)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아직 보장성보험 수요가 잠재해 있는 중·저소득 계층이나 고위험자 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채널을 활용한 순수정기보험의 개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보험개발원(각 연도), 「보험통계연감」.

신원섭·이원기(2010), 「가계저축률하락과 정책과제」, 「BOK 경제브리프」.

안철경(2010),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보험연구원.

久保英也(2005.5), 「マクロ保障倍率による生命保険市場分析と販賣チャネルの將來展望ー市場,チャネルの國際比較から日本へ示唆」, 保険學雜誌 第588号.

生命保險文化センタ(각 연도), 「生命保險ファクトブック」.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각 연도), Life Insurance Fact Book.

The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Facts & Figures(http://www.abi.org.uk/Facts_

and_Figures/Facts__Figures.aspx).

Swiss Re(2010), World Insurance in 2009, Sigma No2/2010.

Thorsten Beck-Ian Webb(2002), "Determinants of Life Insurance Consumption across Countr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No. 2792,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Insurance Foundation, pp. 5~9.

http://www.esri.cao.go.jp/en/sna/kakuhou/kekka/h21_kaku/23annual_report_e.html

<http://www.bea.gov/iTable/iTable.cfm?ReqID=9&step=1>

<http://www.statistics.gov.uk/STATBASE/tsdownload.asp?vlnk=574>